

한겨울보다 더한 불경기로 한약시장 "울상" 산약 오미자 등 일부 제외 전반적 약보합세

민물이 소생하는 봄, 그러나 한약시장 경기는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한약시장의 성수기라 할만한 봄철이지만 비수기인 한 겨울 경기보다 더 못하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푸념.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보약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탓도 있지만 국산 한약재 대신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약재로 대체하는 소비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국산 한약재의 경우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산 시세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입약재로의 대체율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판로를 잃은 국산 한약재는 시세만 높게 형성돼 있을 뿐 실제 매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KBS 9시 뉴스를 통해 방송된 '한약재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출' 보도 이후 한약시장은 거의 초죽음(?) 상태. 그나마 발길이 뜸하던 한약시장이 이번 보도 여파로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몇 일전 한약을 지어간 소비자가 방송을 보고, 지어간 한약을 그대로 복용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왔다"며 이대로 간다면 한약시장 경기는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

인다"고 털어놨다.

영천 약재시장의 박영태씨(00세)는 "최근 영천 약재 시장 장날 하루 매출규모는 지난해 이맘때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년 이맘때 같으면 장날 하루 거래 물동량이 그래도 10만근 이상은 됐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하루 거래 물량이 1만근 어떤 때는 5천근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동약령시장에서 국산 한약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황선기씨도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하루에 최소한 10짜 이상은 나갔었는데 요즘엔 어찌된 일인지 많이 하루 5짜이 고작"이라고 말했다.

경기불황 여파로 매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산한약재 시세는 산약, 작약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약시장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산 한약재 약보합세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기자 시세 소폭씩 꾸준한 내림세 경향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7천원 선으로 지난 1월말 시세보

다 약 5백원 폭으로 하락했다. 국산과 유사한 형태의 수입 구기자가 식품원료로 반입돼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산 구기자의 경우 매기가 거의 없는 상태다. 국산고 비슷한 수입 구기자 시중 유통시세는 근당 1천6백원 선.

당귀 국산과 거의 흡사한 수입당귀의 출현으로 국산 참당귀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경기 부진에다 값싼 수입당귀 영향으로 매기가 거의 없자 시세도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다.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참당귀 시세는 근당(6백g기준) 3천5백원(통), 4천8백원(절) 선. 지난 1월말 시세인 4천7백원(통), 5천8백원(절)보다 1천원~1천2백원 폭으로 값이 빠졌다. 일당귀도 근당 3천3백원 선으로 3천8백원 선이던 지난 1월보다 소폭 내림세. 2일 영천장에서는 토당귀 절품이 근당 4천원 선에 거래됐다고. 국산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울 만큼 거의 흡사한 수입당귀는 000원 선이다.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산 당귀는 판로를 찾지 못한 채 재고만 쌓여가고 있다. 시장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처럼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국산 당귀 재고물량은 약 1백50

만근도 넘을 것이란 추정이다.

독활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독활 근당(6백g기준)도매시세는 4천5백원 선으로 3천7,8백원 선이던 지난 1월말 보다 다소 오름세. 국산 독활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 시세는 다소 더 오를 것이란 산지인의 분석이다.

방풍 내림세 경향.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3월말 현재 식방풍 시세는 근당(6백g기준)3천1백원 선으로 지난 1월말 시세인 3천9백원 보다 다소 내림세 보이고 있다. 원방풍도 지난 1월말 9천5백원 선보다 다소 빠진 9천원 선. 4월2일 영천시장에서의 식방풍 거래시세는 근당 2천5백원 선이라고. 수입산은 식방풍이 근당 2천원, 원방풍이 1천원 선이다.

오미자 물량부족 현상으로 수입 국산 할 것 없이 상승세를 탔던 오미자 시세는 3월말 현재도 꾸준한 상보합세. 그러나 경기불황 여파로 매기 활발치 않은 가운데 거래 물동량 거의 없는 상황이다.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도매시세는 2만7천원 선으로 보합세. 오미자 산지인 전북 장수군내에 약 2천근 가량의 재고가 남아있으나 매기는 없는 상황. 중국 내에서도 오미자 시세는 꾸준한 상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다. 야생 채취 물량이 한정된 오미자가 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해 물량부족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오미자 시세는 근당 3천8백원에서 5천원 선까지 품질에 따라 다양하며 5천원 시세의 수입 오미자는 국산과 거의 흡사해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산약 물동량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국산 약재 중 소폭이긴 하나 드물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 품목.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9

천원 선. 중국산 산약도 상승세 보이고 있으며 국산과 흡사한 수입 산약 시세는 근당 3천2백~4천5백원 선까지 물건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4천5백원 시세의 수입 산약은 육안상으로는 더 좋아 보일 정도라고. 수입산 야생 산약은 근당 3천8백원 선이다. 국산 한약재의 전반적 약보합세 행진 속에서 그나마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약값 시세 유지 배경에는 예년비 산약 출하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산약 생산량이 예년비 대폭 감소한데다 식품으로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건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가는 생것으로의 출하량이 늘어난 때문이다. 산약 재배면적이 그리 많지 않았던 지난해의 경우도 수확량의 절반 이상이 생것으로 출하됨으로서 상대적으로 한약재로의 산약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작약 소폭이긴 하나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품목.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특품에 해당되는 대작약의 경우 1만원선, 중품은 7천5백원, 하품은 5천원 선으로 굵기 등 품질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4월2일 영천장에서의 백작약 거래시세는 대작약이 근당 8천원 선, 중품은 6천원에서 7천원 선이라고. 국산과 흡사한 수입작약은 근당 1천원에서 2천2백원 선이며 2천2백원 선에 거래되는 수입작약은 국산과 구별이 어렵다.

천궁 역시 내림세 경향.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4천3백원(절) 선이던 지난 1월말 보다 다소 빠진 4천원선. 4월2일 영천장에서는 근당 3천8백원 선에 거래됐다. 물량이 워낙 귀한 토천궁은 지난 1월말 1만5천원 시세보다 소폭 오른 1만6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택사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택사 시세는 근당(6백g기준) 3천원(통), 3천5백원(절)선. 지난 1월말 시세인 3천5백원(통), 4천원(절)선보다 소폭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다. 4월2일 영천 장에서는 3천원에서 3천2백원 선에 도매거래 됐다.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중국약재도 약보합세

○...중국약재 시장동향 역시 물동량 잠잠한 상태. 국내 한약시장의 불경기 여파로 수입 주문이 뜸하기 때문이다. 시세도 물량이 많지 않은 연교나 패모, 삼릉, 오미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 경향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시호, 오미자 상보합세

○...서오미자는 kg당 16원(한화 2,560원)에서 28원(한화 4,480원)으로, 북오미자는 24원(한화 3,840원)에서 최근 40원(한화 6,400원)으로 꺾

오른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야생 황금 가격은 안국약재시장에서 kg당 10원(한화 1,600원)에서 13원(한화 2,080원) 선이다.

야생 시호도 물동량 많지 않아 상보합세 경향을 EM고 있으며 안국시장에서의 거래시세는 kg당 28~35원 선 (한화 4,480~5,600원).

산수유 설 명절후 다시 올라

○...다소 내림세 보이던 산수유 시세는 설 명절 이후 다시 올라 3월말 현재 안국약재시장에서의 kg당 거래시세는 30~35원(한화 4,800~5,600원) 선으

로 상보합세 보이고 있다. 야생 관동화 값도 30~40원(한화 4,800~6,400원)에서 다소 오른 50원(한화 8,000원) 선.

옥죽 15~20 에 거래

○...몇년전 국내에서 한창 동굴레 붐이 일기 시작할 무렵,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중국내 옥죽 생산량도 대폭 증가했으나 수요가 뜸해지기 시작한 얼마전 부터는 시세도 8원(한화 1,280원) 선까지 하락. 최근 다시 시세 올라 3월말 현재 안국약재시장에서 15~20원(한화 2,400~3,200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